

교회소식 및 광고

1.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2. 말씀을 생활화하는 성경통독(47주), 7days 범사 감사에 모두 참여합니다.
3. 말씀 나눔: 매일 보내는 말씀 묵상을 따라 기도하면서 참여 바랍니다.
4. **추수감사주일**: 한 해 동안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총동원으로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강단 장식을 위해 과일, 야채를 드리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5. 성경통독: 제 7차 **도전 100일 성경통독**이 은혜 중에 진행(86일) 됩니다.
6. 기도회: 화요일 7시 중보 기도회. 11/22(수) 8시 Zoom 기도회(**감사절 휴강**)
7. 선교바자: 아이티 선교지 방문 위해 사과 판매합니다. *강단미화: 유금자 권사 봉헌
8. **차세대 사역**: 차세대를 위한 관심과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교회 학교와 청년부 사역 문의--김반석 목사(445)208-3527 **

** 기도 상담, 성경공부와 통독 문의--박종님 전도사(267)265-0369 **

** 성가대, 찬양팀 문의--반주자: 임현선 집사(215)869-7632 **

향기로운 예물

지난주일 헌금 봉헌 (\$3,001.00)

십 일 조: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진원 유금자, 유혜영,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조윤경.

감 사: 박동희 박종님, 송희복 송순란, 이경원, 이승택, 임현선,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호기복.

주일헌금: 고향숙, 김반석, 박병기,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선교헌금(7Days 감사): 유혜영, 조민연 우영자, 조병기, 조병우 조은미.

특 별:

2023년 교회 목표

** 후원하는 선교지 기도 제목 **

1. 도미니카 (신현재) 지교회 개척 및 전도
2. 흑 해 (유동윤) 선교센터 건립, 사역자 양성
3. 콜롬비아 (김선훈) 사역자 재교육, 태권도
4. 피 지 (이성일) 신학교 교육, 원주민 전도

제15권 47호 2023년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영혼구원

제자양육

사랑의 섬김

담임목사 조병우

Rev. Dr. Byung Woo Cho

☎ 518-598-6380

byung4815@yahoo.co.kr

필라등대교회
Lighthouse KUMC of Philadelphia

137 N Easton Rd. Glenside, PA 19038

www.lighthousekumc.org

☎ 215-690-4919

주일 낮예배	오전 11:00
영어 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수요기도회	저녁 8:00

추수감사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인도: 조병우 목사

- 경배와 찬양 Opening Hymn 엘림 찬양 단
- 합심기도 Prayer 다 같이
- ♣ 사도신경 Apostles Creed 다 같이
- ♣ 송 영 Spiritual Song 다 같이
- 대표기도 Congregational Prayer 조병기 권사
- 환영과 소식 Parish Concern 인도자
- 찬 양 Anthem 찬양 단
-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골로새서 2:1-7 다 같이
- 설 교 Sermon “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2) ” 조병우 목사
- 특별연주 Special Hymn 은혜 박지연 양
- 봉헌송 Hymn 591장 저 밭에 농부 나가 다 같이
- ♣ 헌금봉헌 Offering 찬송가 213장 (4절) 다 같이
- ♣ 봉헌기도 및 축도 Offering Prayer & Benediction 조병우 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즐겁게 식사하면서 친교를 나누세요. ☽


수요 기도회

감사절 휴강

새벽 기도회

화~토 새벽 6:00

이번 주 섬김이

	낮기도	식사기도	친교 담당	안내, 헌금위원
이번주	조병기 권사	조병우 목사	추수감사주일	조민연
다음주	이진원 권사	박종님 전도사	박종님 전도사	박종님

** 추수 감사 절기를 보내면서 **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마다 청교도들의 신앙 유산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을 위해 영국 청교도들이 조국을 처음 떠났던 시기는 1620년 8월 15일이었고, 출발지는 사우스 샘프턴이었습니다. 그러나 메이플라워 호와 같이 떠났던 스피드웰 호가 누수고장을 일으켜 2번이나 귀항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9월 16일 메이플라워 호는 102명을 싣고서 단독으로 플리머스 항을 출발하여 미국으로 떠났으며, 11월 19일 케이프코드만을 경유, 21일 프로빈스 타운에 입항하여 선박 수리와 보급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12월 21일 그들은 메사추세츠 연안에 도착하여 그 지역을 플리머스로 이름 지었습니다(브리태니카).

이처럼 2번이나 되돌아가는 항해를 거쳐 미 대륙에 도착한 그들은 굶주림 속에서도 그 해 첫 추수를 해서 1/3을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바쳤습니다. 저들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 온 것은 잘 먹기 위해서나 멕시코 사람들 같이 금을 캐러 온 것도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위하여 이 황무지에 찾아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뼈를 이 침묵의 광야에 묻을 때 이곳에 신앙의 자유가 꽃피며 인간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주에 빛나게 하옵소서."

추수감사절에는 물질주의 세상에서 물질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심을 가지는 절기입니다. 지난 3년간 COVID로, 자연적 재해와 지금도 전쟁과 테러가 계속되는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2023년 추수 감사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이 어느 해에 비해서 감회가 큼니다.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맞이하는 감사 절기에 하박국의 감사와 기도가 떠오릅니다.

기원전 600년경 바벨론 침입으로 이스라엘의 온 땅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양식인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에 심어 놓은 식물까지 모두 철저히 유린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에서 소떼들이 달아납니다. 얼마나 큰 시련입니까? 그때 선지자 하박국이 "그렇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마음이 얼마나 뼈아픈 마음이었겠습니까? 이 예언자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를 살려 주시고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노래하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택하시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의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그 모든 시험과 역경에서 이끌어 내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질병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구원하셨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가정에 보배로운 자녀를 주시고 길러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직업과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믿음의 터인 우리들의 교회와 성도들을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역자들과 목회자들을 세워 주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적으로 감사하기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의 환경과 입장이 어떠한지 간에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는 문이며 하나님 은혜는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감사합니다!